



강석후 / 정회원, 한도시 건축사사무소  
by Kang, Suk-hoo, KIRA

약력

- 단국대학교 졸업
- 2002 서울특별시건축사회 연수위원장
- 2005~2007 대한건축사협회 이사
- 2006 건축사법 개정위원장, 건축문화신문 논설위원
- 2006~2007 한국건축산업대전(KAFF) 전시위원회 위원장

## 건축문화정책은 부활과 재생

### Revival and rebirth of architectural culture

도대체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내 직업에 대한 기본적인 물음이며 이 물음에 답하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건축인으로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 어쩌면 나의 삶 자체가 건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내가 만약 잘못된 건축을 한다면 나의 삶이 잘못 된 것이고 나의 직업이 잘 된 것이라면 나의 삶 또한 성공한 것이라 생각해 본다.

21세기를 맞이한 지금 테크놀로지의 발달에 의해 세계는 커다란 변화의 소용돌이 한 가운데 있으며 건축물이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다.

테크놀로지가 세계를 새로운 구조로 물고 가려 할 때 우리의 생활환경에 녹아 있던 미적인 가치는 종종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한다. 세상이 기술과 경제 논리만으로 앞으로만 나가려 하는 바람에 가끔 생활 속의 미의식은 급격한 변화를 이기지 못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보면서 나는 현재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눈길을 향하기보다 오히려 그런 비명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변화 가운데 사라져 가는 섬세한 가치들에 눈을 돌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 느낄 때가 많고 그런 생각으로 나날이 강해지고 있는 나를 발견 하곤 한다.

시대를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만이 반드시 진보라고 생각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그러하다.

우리는 미래와 과거의 좁은 틈 사이에 서 있다. 창조적인 일들의 실마리는 사회 전체가 바라보는 시선 앞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사회의 배후로부터 통찰하는 듯 한 시선의 연장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 앞에는 미래가 있지만 배후에도 유구한 역사가 창조의 자원으로 축적되어 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순환하는 발상의 역동성이 크리에이티브(Creative)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최근 서울시의 시청본관 훼손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의 건축정책과 문화재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심히 염려 되고 안타깝다.

최초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에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 발표 이후 나라 전체가 공공디자인으로, 2010년 서울시 세계 디자인 수도 선정 등 각종 이벤트식 행사계획으로 떠들썩하다. 원리도 원칙도 없어 보이는 새마을 운동식 밀어 붙이기를 보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 전 세계는 문화로 내실을 다지는 잔잔한 도시혁명이 진행 중이다. 세계의 도시들이 '재생'이나 '인간중심'의 느린

special focus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부르짖으며 출발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가  
즉흥적인 건축문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생활까지 아늑하게 해주며  
일본의 '마나즈루'나 '가와고에'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전통과 멋까지 드러나는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도시를 꿈꾸어 본다.

개발'로 문화의 거점을 만들고 있으나 우리는 지도자의 임기 내에 어떠한 성과를 만들고자 하는 성급한 디자인 정책이 또 다른 디자인 재앙을 몰고 온다는 진리를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눈에 띄는 멋진 건물도 아름다운 도시를 꿈꾸던 시대의 종언을 세계의 건축 전문가들이 선언 했는데도 우리만은 역행하고 있는 듯하다.

개발 논리 속에 도시의 주인처럼 대접받던 '빌딩, 자동차, 도로'는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났다. 대신 '사람, 자연, 문화' 등 도시의 원래 주인이 제자리를 찾고 있다.

'지속가능한(Sustainable) 도시' '에코(Echo) 도시'로 환원 되고 있다. 전 세계의 주요 도시들은 10년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만은 3~5년 단위의 프로젝트가 장기계획이 없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엠셔(Emscher)강을 끼고 있는 루르(Ruhr) 공업단지 재생 프로젝트는 1989~1999년 1단계, 2000~2010년 2단계, 2010~2020년 3단계로 폐광, 폐공장 등 기존 산업시설을 활용해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까지 약 25억유로(약 3조 9,000억)가 투입돼 120개 프로젝트가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1단계의 환경공원화작업(Landschaftspark)은 그 중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200헥타르에 이르는 제철소 시설을 개조하여 만들었다. 또 유럽연합(EU)의 의회가 있는 도시로 유명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 역사 증축공사는 구역사를 살리려고 투명유리재료를 사용했다. 그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한 단면이다. 베를린의 '타이저베르린성당'은 폭격을 맞은 채 그대로 유물로 보존되고 있으며 뉴욕에서는 미트파킹(Meat Parking)지역의 P·P·S(Project for Public Space)에서 180개 건물을 철거 못하게 보존시켰다.

우리의 도시는 사라지고 변화하고 탄생한다. 그러는 중 우리의 유물이 없어지고 역사도 문화도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도시를 부활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역사도 문화도 살려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 시청사 본관 증축 논란은 재생, 부활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한 머물고 싶은 곳의 키워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어떨는지, 환경오염의 주범이 친환경의 메가로 변한 뒤스부르크(Duisburg)의 환경공원처럼 우리도 훼손 없이 변하고 부활 할 수는 없는 것일까?

도시와 인간의 조화를 부르짖으며 출발한 '디자인코리아 프로젝트'가 즉흥적인 건축문화 정책으로 흐르기보다 도시 속에 사는 사람들 생활까지 아늑하게 해주며 일본의 '마나즈루'나 '가와고에'가 그러했듯이 우리의 전통과 멋까지 드러나는 경쟁력을 갖춘 우리의 도시를 꿈꾸어 본다. ■